

8. 마요르카 출발과 도착(11.9)

제목 1: 동네 산책

마요르카로 출발하는 날이다. 비행기는 오후 5시 40분에 있고 체크인 시간은 12시다. 시간 관리가 애매하다. 카사 루치아노에서 커피와 곁들인 햄 치즈 크라상과 샌드위치로 아침 식사를 해결했다.

다소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대로의 이면 골목길을 따라 걷는다. 사람 사는 풍경들을 본다. 유모차 밀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이 수다 떨며 오간다. 노상 카페에서 노인들이 담배 피며 아침 커피를 마신다.

경사 있는 골목길을 내려가고 있는 유모차에 탄 어린이가 잔뜩 긴장해서 두 손으로 유모차를 꼭 잡고 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내려가니 앞으로 쏠린 어린이가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 엄마는 아는지 모르는지 잡담을 하며 유모차를 밀고 있다. 아내가 보고 웃음을 터뜨린다.

여기서도 종종 할아버지들이 유모차를 밀고 산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즈음 우리 풍경과 비슷하다. 어디나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다.

마드리드 사람들은 노상 카페에 앉아 커피와 맥주 마시는 것을 즐긴다. 공기가 냉하고 바람이 부는데도 말이다. 나는 추워서 의자에 앉기도 싫다. 냉큼 카페 안으로 들어간다.

가만이 보면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보다 추위에 익숙한 것 같다. 집 구조가 우리 아파트 같이 따뜻하지 않고 항상 냉한 기운이 있다 보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여튼 일상생활에서 추위를 잘 견딘다.



제목 2: 공항의 보안 검사

마요르카는 마드리드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 이다. 항공권은 출발 전 서울에서 이베리아 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발권했다. 그런데 발권하는 과정이 장난이 아니다. 정말 까다롭다. 우리나라 온라인 발권을 생각하면 안된다.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럴까?

출국장 보안 검사가 철저하다. 유럽은 테러가 있는 곳이라 보안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 같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여행객들은 진땀 난다.

깜박하고 아이패드를 백팩에서 빼지 않았더니 다시 돌아 나가서 처음부터 검색을 받으라고 한다. 다시 길게 늘어선 줄 끝에 서서 검색을 받을 상황이다. 아내는 안쪽에서 영문도 모르고 나를 찾고 있다. 다행히 키가 큰 노인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를 끌어 당겨 자기 앞에 서라고 한다. 고마운 일이다.

제목 3: 출국장의 하몬 하부고 바에서 하몬 샐러드를 먹다

하몬은 스페인 음식 중 별미다. 왕도 하몬과 올리브는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다는 말이 있다. 돼지 뒷다리를 염장 처리 한 후 건조시킨 햄이다. 하몬에도 등급이 있다. 세라노(Serrano), 이베리코(Iberico), 하부고(Jabugo) 인데 그 구분 내에서도 또 프리미엄 등급이 있다. 그런데 출국장에 하몬 바가 있다. 하몬 하부고로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 판다. 홍보형 매장인 것 같다.





그냥 지나칠 아내가 아니다. 여기서 하몽도 파네 하고 말한다. 먹고 싶다는 얘기다. 이 말을 무시하면 다른 형태로 짜증 부릴 것이 뻔하다. 먹을래? 했더니 살찌니까 아니라고 사양한다. 그냥 얘기해 보는 것이라고. 그래도 운동하면 되지 하고 이끌어야 현명하다.

아내는 토마토에 하몽 하부고를 올린 샐러드를 나는 하몽을 넣은 바게테를 주문했다. 그것도 프리미엄으로. 내가 바게테 반쪽을 더 먹으라고 줬더니 배부르다고 나보다 먹으라고 한다. 그러더니 그 것을 네프킨에 싼 뒤 핸드백에 담는다. 마요르카 호텔에 도착하면 인스턴트 닭 수프와 함께 저녁으로 먹겠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다.

제목 4: 만석의 비행기 속 사람들의 수다

비행기는 만석이다. 좁은 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앞 뒤 사람들의 수다가 끝이 없다. 귀가 따갑다. 스페인어 발음도 딱딱한 편이라 중국 사람들 얘기하듯 격하고 시끄러울 때가 있다. 특히 신경이 사나울 때는 더욱 그렇다. 한시간만 참으면 된다.

아내는 청각과 후각이 매우 예민하다. 혼잣말로 수다가 지겹다고 투덜댄다. 아내는 분당 탄천을 산책할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때때로 알아듣는다.

자기 목소리도 꽤 큰 편이다. 나는 평생 아내의 톤이 높은 큰 목소리 듣고 살아왔다. 불평을 하면 자기 목소리 큰 것은 내가 원인 이란다. 그런 아내 목소리가

조용할 때가 있다. 아플 때다. 종종 2-3일 아플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집안이 귀
죽은 듯 조용하다. 그러다가 아내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다. 회복하고
있다는 표시다. 이 때는 큰 목소리가 반갑다. 역시 집은 좀 큰 목소리가 나와 활
기 차지 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제목 5: 마요르카 일정 시작

오후 7시 넘은 시간에 마요르카 공항에 도착했다. 밖은 캄캄하다. 공항에서 택시
를 타니 20여분 만에 아파트 호텔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길을 요리 조리 돌며 도
착했다. 조그만 플라자를 앞에 둔 호텔이다.



내부에 들어오니 복층 이다. 깨끗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다. 1층은 생활 공간 2층은 침실과 욕실이다.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복층 호텔을 이용하는 것은 두 번째이다. 19 년 전 가족들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여행했을 때 한 번 사용했다. 넓고 편했던 기억이 있다. 아이들도 인상이 깊었던지 지금도 그 호텔을 기억하고 있다.

특별한 일정없이 마요르카에 왔다. 섬이니 그렇게 볼 게 무엇이 그렇게 많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여름이면 휴양지로 관광객이 붐비는 지역이지만 지금은 늦가을이다.

마요르카는 요즘 한국에서 신혼여행지로 뜨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와 아내는 한적한 분위기를 찾아 왔기 때문에 이리 저리 산책이나 할 생각이다. 그러기에 5일은 너무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